

[연구논문]

미국 흑인 페미니스트 오드리 로드의 교차성 이론과 감정 연구*

박미선

(한신대학교)

I. 오드리 로드: 20세기 후반 사회 운동의 담론을 형성한 인물

미국 흑인 여성 시인 오드리 로드(Audre Lorde, 1934-1992)는 1960년대 이후 흑인민권운동, 여성운동, 초기 퀴어 운동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다. 1960년대부터 10여권의 시집을 출판하며 액티비스트로도 활동한 로드의 산문은 20세기 후반 페미니즘 이론이 진화하고 초기 퀴어 담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기록한다. 로드의 에세이와 연설문을 모은 『시스터 아웃사이더』(*Sister Outsider*, 1984)와, 로드 사후 미출간된 글과 주요 산문을 모은 『나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I Am Your Sister*, 2011)에서 로드는 당대 흑인 공동체와 흑인민권운동에 만연한 성폭력과 동성애혐오, 여성운동 단체와 학계의 인종차별주의와 이성애주의를 거론하며 정교화한 억압 분석과 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론화한다. 또한, 이러한 다층적이고 동시적 억압으로 인해 흑인 여성들의 내면에 구조화된 심층심리를 탐구한다.

1)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미국 흑인 페미니즘 전통에서 로드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쓴 산문을 다시 읽으면서 현대 페미니즘 이론에 기여한 바를 살펴본다. 이론가로서 로드를 재평가하는 이 글은 로드가 특히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현대 페미니즘 이론을 혁신했다고 주장한다. 첫째, 로드는 여러 억압의 교차적(intersectional) 관계성을 이론화했다. 둘째, 로드는 교차적 억압분석에 감정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로드는 “흑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이자 [아들과 딸] 두 자녀의 어머니이고 인종경계를 가로질러 [백인 여성과] 결혼한 여성”¹⁾임을 늘 밝혔고, 특히 레즈비언임을 공표하고 활동한 몇 안 되는 최초의 흑인 페미니스트들 중 한 명이다 (Byrd 12; Guy-Sheftall 2011, 253). 로드는 자신이 지닌 다층적 차이를 긍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론화하는 가운데 억압을 분석한다. 『시스터 아웃사이더』와 『나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에서 로드가 제시한 억압분석은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등을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억압의 체계들로 분석하는 접근틀을 사용하며, 여러 억압체계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교차적 관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이론화한다. 로드의 교차성 이론은 감정 정치에 대한 탐구에서 완성된다.

로드의 교차성 이론과 감정 연구는 미국 흑인 페미니즘의 교차성 이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흑인 여성과 레즈비언의 경험과 역사를 통합하는 페미니즘 관점과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점을 논증하는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관찰에서 출발한다. 많은 이들이 로드의 『시스터 아웃사이더』가 교차성 이론화에 공헌한 저서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만 할 뿐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²⁾ 또한, 로드가 이 책

1) Audre Lorde, *Sister Outsider* (Berkeley: Crossing Press, 2007), 114.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제시함. 로드는 1962년 백인 남성과 결혼하여 딸과 아들을 낳았으며, 1968년부터 백인 여성 클레이튼(Frances Clayton)과 레즈비언 커플 관계를 맺으며 두 자녀를 함께 길렀다.

2) 예컨대 다음을 참조. 콜린스; Carastathis; Collins and Bilge; Hancock; Ilmonen; Nash; Nayak.

및 다른 산문에서 이론화한 교차적 관점과 분석에 대한 논의도 별로 없다.³⁾ 이 글은 로드가 산문 글쓰기를 통해 제시한 이론적 혁신을 논증하기 위해 먼저 현대 미국 흑인 페미니즘에서 교차성이 이론화되는 과정을 간략히 논의한다(II절). 이것은 로드가 이론작업을 한 맥락을 살펴보는 논의이기도 하다. III절에서는 로드의 교차성 이론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 사회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시 상기한다. 마지막 절은 로드가 흑인 여성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심층심리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교차성 이론을 감정 연구로 심화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로드의 이론이 당대와 훗날 교차적 관점과 분석을 없는 페미니즘 지식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든 불귀의 지점을 형성했다고 재평가한다.

II. 미국 흑인 페미니즘과 교차성 이론

교차성 이론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 시민권, 장애유무, 나이 등이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역압을 구성하는 여러 체계들이며, 개인과 집단이 그 안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권력체계라고 본다. 각 항목에 기반한 권력체계는 서로를 강화하며 작동한다. 예

3) 로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와 자서전(*Zami*, 1982)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경향을 간략히 보려면 다음을 참조. Ilmonen; Byrd, Cole, and Guy-Sheftall, ed. (265-266). 로드 사망 10주기와 20주기를 기념하여 로드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고 그 결과물이 페미니즘 학술지 특집호(*Women's Studies Quarterly* 40.3&4 [2012]; *Feminist Studies* 40.1 [2014])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특집호들에서도 로드의 교차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한국에서 진행된 로드연구는 암투병 서사(*The Cancer Journal*, 1980)를 다룬 논문 두 편과 자서전을 다룬 논문 두 편, 시를 논의한 논문 한 편이 있다. 이 글은 로드를 교차성 이론가로 논의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2000년 이후 나타난 교차성 연구의 보편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흑인 페미니즘과 사회운동의 뿌리를 다시 상기한다.

컨대, 교차성 이론에서 섹슈얼리티는 젠더, 인종, 계급, 민족이 서로 합류하는 사회적 지점으로 분석될 수 있고(콜린스 6장), 가족이나 사회단체는 여러 억압구조와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재생산되는 동시에 저항을 받는 복합적인 지점으로 이해된다(Collins 1998).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작동하는 여러 억압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특정한 방식으로 교차한다. 교차성 이론은 억압의 다층성과 복잡성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만큼 개인과 집단의 주체능력(agency)이 작동하는 공간도 마련하는 이론이다. 즉, 섹슈얼리티, 인종, 젠더, 계급 등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권력구조에서 개인은 맥락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복수적(multiple) 입장을 지니게 되며, 그러므로 언제나 절대적인 억압자나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는다(콜린스).

억압적 권력구조와 불평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흑인 여성을 포함한 유색 여성 페미니즘의 발흥과 더불어 정교화되었다.⁴⁾ 1960년대 후반부터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흑인민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교차성 분석틀을 발전시켰다. 여러 사회운동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활동한 이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억압이 인종만 거론하는 틀이나 계급 혹은 젠더만 거론하는 틀로는 온전히 설명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들 중 일부가 학계로 들어가면서 흑인 페미니즘에서 나온 개념과 접근법은 흑인연구, 인종연구, 여성학, 젠더연구, 섹슈얼리티연구에 녹아들어갔다(Collins and Bilge 78). 그러면서 인종, 계급, 젠더를 교차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 거론되었고 약 30여년을 두고 정교화되었다. 대략 2000년부터 교차성 이론은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법으로 여러 분과학문에 퍼져나갔다.⁵⁾ 이제 교차성은 “여성학이 지금까지 해

4) 교차성 이론을 정교화하는데 기여한 유색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예컨대 다음을 참조. 박미선; Carastathis (1장); Collins and Bilge (3장); Hancock (3-4장).

5) 대표적으로 2012년에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교차성 연구를 출판하는 학술지 (*Intersectionalities*)가 창간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교차성 연구가

은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공헌”(McCall 1771)이라고까지 언급될 정도로 강력한 페미니즘 연구방법론이다.

이렇게 진화해 온 교차성 이론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미국 흑인 페미니즘이다(콜린스; Carastathis; Collins and Bilge; Hancock). 2000년 이후 교차성 연구가 여러 분과학문에 제도화되고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차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상이한 계보를 지니게 되었다(Ilmonen; Hancock; 주 5도 참조). 그러면서 교차성 연구에서 미국 흑인 페미니즘의 공헌을 누락하고 교차성을 “보편적” 연구방법론으로 전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Carastathis, “Introduction”; Collins and Bilge, ch. 3; Hancock, ch. 1). 이것은 부분적으로 교차성 개념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은 교차성이 개념화되고 진화한 역사적 맥락을 삭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교차성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여러 사회 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기되고 표명된 문제의식에 그 뿌리를 둔다(콜린스; Collins and Bilge). 특히 여성운동에서 여러 억압의 교차를 거론하며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이론화한 이들은 유색 여성이다. 교차성 분석틀이 나온 사회 운동의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이 분석틀이 학계로 통합되어 연구방법론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유색 여성들의 집단적 이론적 공헌을 슬며시 누락하는 인종차별주의가 작동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점은 크렌쇼(Kimberlé Crenshaw)를 교차성 연구의 “기원점”으로 언급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Carastathis 1; Collins and Bilge 81; Ilmonen; Hancock 13; Nash 6-7). 크렌쇼는 1991년 논문(“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맥콜(McCall)의 글을 참조. 2000년 이후 젠더 사회학과 여성학에서 교차성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 여러 흐름에 대한 명쾌한 분석은 주혜연(Choo & Ferree)의 글과 콜린스의 공저(Collins and Bilge 77-113)를 참조. 교차성을 특집으로 다룬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006); *Du Bois Review* (2013); *Signs* (2013).

Women of Color”)에서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을 미국의 사법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법학과 비판사회이론에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크렌쇼는 교차성 개념이 미국의 사회현상과 유색 여성의 경험을 설명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임을 증명한다. 크렌쇼의 교차성 개념은 실제로 그녀가 흑인 페미니즘 전통 안에서 작업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크렌쇼를 교차성 이론의 기원점으로 보는 학계의 편향을 지적한 학자들의 관찰에 동의하는 필자는 로드의 이론을 논의함으로써 교차성 이론이 표명되고 전개된 여러 사회 운동의 맥락을 다시 상기한다. 그러면서 필자는 현대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에 로드와 같은 흑인 여성들의 기여가 핵심적이었음도 다시 강조한다.

로드의 『시스터 아웃사이더』는 미국 흑인 페미니즘에서 교차성 분석들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 텍스트들에 속한다. 제2물결 급진 페미니즘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 시기 흑인 페미니즘을 형성한 주요 문헌이고, 내쉬(Jennifer Nash, 2)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원형적 교차성 정치”(proto-intersectional politics)를 주창한 텍스트들에는 프랜시스 빌(Frances Beale)의 「이중의 위험: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것」(“Double Jeopardy: To Be Black and Female,” 1970), 1974년에 결성된 흑인 페미니스트 단체 콤바히 리버 콜렉티브(The Combahee River Collective)의 「흑인 페미니스트 성명서」(1977), 앤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의 『여성, 인종, 그리고 계급』(1981), 로드와 『시스터 아웃사이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⁶⁾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로드가 주요 페미니스트 행

6) 흑인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 외에 다른 여러 텍스트를 추가하기도 한다. 예컨대, 다음을 참조. Guy-Sheftall, ed. (1995, 229-357); Carastathis (ch. 1); Collins and Bilge (ch. 3). 필자는 당대성을 기준으로 선구적 텍스트들을 선별하였다. 필자가 선별한 텍스트들은 당대 흑인 여성 운동을 형성한 텍스트들이다. 로드의 이론적 중요성은 분량과 내용 둘 다에서 “고전적 저서”라 할 이론서를 낡았다는 점에도 있다. 데이비스의 1981년 저서는 노예제 시절부터 20세기까지 미국 흑인여성들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로드의 산문은 1970년대 이후 당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레즈비언 흑인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바탕한 페미니즘 이론을 제시한다.

사에서 한 연설과 에세이를 모은 『시스터 아웃사이드』에서 제시한 교차성 이론은 이 텍스트들에 힘입은 것이고 이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로드의 저서를 포함한 이 텍스트들은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를 통한 억압의 다층성을 규명하고 복합적 억압에 대항하는 흑인 페미니즘의 교차적 관점과 인식론을 제시한다. 이 선구적 텍스트들은 훗날 킹(Deborah King)과 크렌쇼, 콜린스(Patricia Collins) 등이 교차성을 정교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Carastasthis, 15-68; Collins and Bilge 77-89). 킹은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을 “다층적 위험”(multiple jeopardy)으로 개념화하면서, 인종 더하기 젠더 식으로 이해하는 더하기 모델(additive model)이 가정한 동질성 전제를 깬다. 킹은 흑인 여성에게 “각각의 차별이 단 하나의 직접적인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에 도전”하며 억압의 여러 체계가 “서로 맞물려”(interlocking) 작동함을 보여주는 분석모델을 제시한다(297). 콜린스는 교차성을 “지배 매트릭스”로 이론화한다(콜린스 11장).

학계에서 교차성 이론의 개척자들로 인정되는 킹, 크렌쇼, 콜린스보다 먼저 교차적 관점을 제시한 흑인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로드가 가장 심층적인 교차성 분석을 제시한다. 필자가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흑인 페미니즘에서 로드를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대 흑인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로드도 여러 교차적 억압을 당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이론, 그리고 흑인운동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로드의 교차성 분석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자기 변화와 사회변혁에 “필수적인 창조적 동력”(135)으로 이론화한다. 그리고 로드의 차이 이론은 흑인 여성들이 내면화한 억압을 표출하는 여러 방식과 그 심층심리를 탐구한 감정 연구를 제시한다.

III. 로드의 교차성 이론: 인종차별, 성차별,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의 분석

로드의 교차성 이론은 로드 자신의 다층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스터 아웃사이드』의 앞부분에 실린 「시는 사치가 아니다」(1977)와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바꾼다는 것」(1977)은 로드 자신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가 미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로 인해 레즈비언 흑인 여성에게 강요된 침묵을 깨는 행위임을 기록한다. “이제껏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나의 침묵이었다. . . . 나의 침묵은 나를 보호해준 적이 없다”(41). 로드에게 정체성이란 강요된 침묵을 깨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로드가 침묵을 깨는 것은 자신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잠시나마라도 부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하여 그것을 유의미한 전체로 제시하고 내 자신의 다른 부분들을 가리거나 부인하기를 거부한다”(120).

로드는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종 경계를 넘어 백인 여성과 결혼한 흑인 레즈비언이자 두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인 나는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모든 이가 쉽사리 들이대는 편견을 부수는 부분을 지닌 존재였다. 이로 인해 나는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환상 속으로 씹혀 들어가 산 채로 먹힐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규범에 맞는 척 하지 않으면, 나의 시,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투쟁 에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이런 게임에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일에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가면 행세에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키워야 할 자녀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은 고조되었고, 우리의 도시는 불타오르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회장으로 나왔고, 마약이 우리의 거리를 접수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토박토박 표현하는 힘이었다. (137-138)

위 인용문은 로드에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 과정은 “모든 이가 쉽사리 들이대는 편견”과 백인/남성/이성애중심적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가면 행세”에 맞서는 행동도 수반한다. 이러한 행동은 레즈비언 흑인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권력의 역할도 드러낸다. 젠더나 인종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등 억압의 위계를 전제하며 하나만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로드는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긍정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 했다.

로드는 흑인 레즈비언이자 두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찾아낸다. 바로 이 때문에 로드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등의 억압체제는 서로를 강화하며 작동한다는 교차적 관점을 이론화할 수 있었다. 로드는 당대 사회 운동의 한계도 직설적으로 언급한다. “단 하나의 쟁점을 이슈로 하는 투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쟁점이 하나뿐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 우리는 흑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여성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임을 인식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138-139).

로드는 일상적 경험을 언어화하는 가운데 흑인해방운동, 여성운동, 당시 막 조직중인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의 핵심 의제로 교차성을 제기하며 페미니즘 인식론을 확장한다. 1975년 인터뷰에서 로드는 흑인 여성들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서로에게 양분을 주며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을 일상적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Hall, ed. 5). 「억압의 위계는 없다」(1983)에서 로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당대 사회운동에 교차적 인식을 촉구한다. “억압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지배의 도구이다.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나는 흑인이고, 흑인 공동체에서 나는 레즈비언이다. 흑인에 대한 어떤 공격도 레즈비언과 게이 이슈이다. 왜냐하면 나와 수천 명의 흑인 여성은 레즈비언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어떤 공격도 흑인의 이슈이다. 수천 명의 레

즈비언과 게이는 흑인이기 때문이다. 억압의 위계란 없다”(Byrd, Cole, and Guy-Sheftall, ed. 220).

흑인 공동체에서 로드는 흑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이성애 중심적 섹슈얼리티 규율을 거론한다. 「표면굽기: 여성과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하여」(1978)와 「성차별주의: 흑인 가면을 쓴 미국의 질병」(1979)에서 로드는 흑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억압의 양상이 정당화되는 방식을 규명한다. 인종차별주의, 특히 이성애주의와 동성애혐오에 대한 로드의 정의는 그 자체로 당대 페미니즘 이론을 혁신한다. 처음에 『흑인학자』(*The Black Scholar*)에 실린 이 두 편의 글은 로드가 흑인 공동체 “성차별주의 논쟁”에 참여하면서 쓴 글이다. 1970년대 말 흑인민권운동이 거둔 성과와 흑인 페미니스트 문학이 점점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흑인 가모장이 흑인 공동체를 해치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우기는 이데올로기적 역풍이 강하게 불었고, 흑인 여성을 통제하고자 만들어진 “인종차별주의에 뿌리를 둔 거짓신화”인 흑인 가모장 이미지를 흑인 공동체도 받아들였다(45).⁷⁾ 당시 흑인 남성 지식인들은 이 “거짓신화”를 이용하여 흑인 여성 작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저작이 흑인 남성성을 공격한다고 맹비난하곤 했다.⁸⁾

이 두 글에서 로드는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woman-hatred)가 “흑인 공동체의 심장부를 강타한 질병”임을 강조하며(120) 이 문제가 동성애혐오, 인종차별주의와 결합하여 흑인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우선 로드는 흑인 여성을 흑인 공동체와 흑인 해방 운동의 주체로 재정의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정의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힘과 이해관계를 탐구하고 추구하며 스스로를 정의하는 흑인여성들은 흑인 해방 투쟁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7) 더 자세한 논의는 콜린스(134-156) 참조.

8) “성차별주의 논쟁”의 주요 쟁론은 『흑인학자』 1978-1979년 호들에 실려 있다.

다”(45-46). 이 언급은 흑인 공동체에서 “지배와 복종이라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오래된 낡은 모델”(46)이 고수되고 있음도 뜻한다. 로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흑인 해방을 가로막는 일차적 장애물이다.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의 힘을 “자원이 아니라 도전으로” 여기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착종된 성차별주의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며, 이는 흑인 여성에 대한 “수평적 적대감”으로 표출된다(46). 지배의 오랜 수법 중 하나는 여성을 심리적 보상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는 흑인 남성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조장한다. 흑인 남성에게 인종 억압으로 인한 좌절감을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보상받으라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종 억압은 권력 구조와 지배 집단에 수직적으로 저항함으로써만 줄어들 수 있다. 흑인 남성들이 지배 구조에 저항하는 대신 흑인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수평적 적대감”은 흑인 해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차별을 인종차별의 분풀이로 이용하는 것은 흑인 여성들의 힘을 빼앗음으로써 흑인 공동체 전체의 힘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로드는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억압을 규명한다. 예컨대, “강제적 불임시술, 사실상 박탈당한 낙태권, 강간 역시 흑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억압의 도구이다”(46).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이다(60). 흑인 여성이 차지하는 낮은 사회계급은 인종과 젠더가 결합된 차별의 결과이다. 흑인 남성들이 인종억압과 젠더억압의 교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흑인 페미니즘을 “흑인 가면을 쓴 백인 페미니즘”이라고 왜곡하며 흑인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자기패배적인” 행동이다(60). 인종적으로 억압받다고 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흑인 남성의 성차별주의는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흑인 공동체에서도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여러 억압에 대한 로드의 분석에서 가장 탁월한 점은 이성애주의와 동성애혐오를 논의한 대목이다. 로드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성애주의: 특정한 사랑의 방식이 다른 방식

보다 본래 우월하기에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믿음. 동성애혐오: 동성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에 대한 혐오”(45). 현대 페미니즘 이론이 진화해 온 궤적을 고려하면, 로드의 논의는 (후에 발흥할 퀴어 이론의 역사에서도) 꽤 선구적이다. 로드는 1978년에 이성애주의를 권력 제도로, 동성애 혐오를 이성애주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심리 구조로 논의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인 로드는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성애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함께 공명한다”고 지적한다(121). 이 관찰에 기반하여 로드는 흑인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신체적 폭력과 위협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을 통해서 작동된다는 점을 분석한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적 인식은 상징적 폭력에 해당한다.

로드는 상징적 폭력 중에서 가장 비가시화된 것, 가장 인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강력한 지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레즈비언에 대한 낙인이 그것이다. “현재 흑인 공동체에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라는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레즈비언들이 가짜 미끼로 이용되고 있다”(47). “레즈비언을 표적으로 삼는 히스테리”(50)를 이용하여 흑인 남성은 흑인 여성을 헐박하고 여성혐오를 마구 표출하며 여성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 한다.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이것은 종종 폭력과 공포심 주입으로 표출된다. 흑인 여성들은 레즈비언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비하한다.

권력제도인 이성애와 이를 지탱하는 동성애혐오는 여성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도록 조장한다. 동성애혐오는 흑인해방운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여성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는 “차이를 역동적이고 인간적인 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키우는 동일한 뿌리”를 지닌다(45).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는 인종차별주의와 동성애혐오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권

력 배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흑인 남성의 해방에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64). 흑인 여성도 억압을 내면화하면서 식민화된 무의식과 자기혐오로 인해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레즈비언 낙인에 공모한다. 로드는 이렇게 지적한다. “여성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니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를 꺼리고 차이를 무시하고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되는 왜곡을 효과적으로 다루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분열된다”(123). 흑인 여성들도 차이를 분열의 원인으로 오인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는 효과들 중 하나다. 흑인 여성들이 흑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공모하거나 외면하는 것 역시 그 효과들 중 하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로드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개최한 주요 전국행사에 참여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이성애주의를 끈질기게 문제삼으면서,⁹⁾ 여성들 사이의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상의 차이를 인식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도 인종,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 등에 따라 배제되고 비가사화되며 부재로 처리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은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키고 이론적 편향성을 강화한

9) 예컨대, 로드는 페미니스트 문예지 『크리살리스』(*Chrysalis*)의 백인 편집진과 인종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창간호(1976)부터 맡았던 시 분야 편집장직을 사퇴한다(1979). 이 논쟁의 와중에 공론화한 글이 『여성/생태학』(*Gyn/Ecology*, 1978)의 저자 「메리 데일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다(1979년 9월). 이 글에서 로드는 어떻게 인종차별주의가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지식 생산을 왜곡하는지를 논의하면서 “자매애를 넘어서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70). 오랫동안 널리 읽힌 이 공개 서한의 역사적 의의는 향후 페미니즘 이론이 이런 맹점을 반드시 성찰하도록 자극했다는 점이다. 이 서한을 공개한 지 2주 후 열린 『제 2의 성』 출간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도 로드는 백인 페미니스트들과 갈등을 경험한다. 이어 미국 여성학회(1977년 창립)가 로드에게 1980년 연례 학술대회의 특별 강연을 요청하지만 로드는 이를 거절한다. 인종차별주의를 다루는 세션을 한 개만 조직한 구색맞추기에 저항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해 여성학회는 인종차별주의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로드는 1981년 여성학회에서 분노를 거론하는 기조 연설을 한다. 이 각주는 로드 평전(Alexis de Veaux)을 참조함.

다. 「주인의 도구로는 주인의 집을 결코 허물 수 없다」(1979)와 「나이, 인종, 계급, 성: 차이를 재정의하는 여성들」(1980), 1981년 미국 여성학회 연례 학술대회 기조 강연문인 「분노의 활용: 인종차별주의에 대응하는 여성들」에서 로드는 당대 페미니즘 지식생산의 편향을 교정하고 흑인 여성과 레즈비언의 경험을 지식 생산에 통합하는 교차적 인식론을 제시한다.

『제 2의 성』 출간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세션에서 발표한 글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허물 수 없다」에서 로드는 여성 억압을 설명하는 범주로 젠더만 특권화하는 당대 페미니즘의 개량주의를 맹렬히 비판한다.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나이 등 미국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페미니즘의 진지한 연구 의제로 삼아야 한다(110). 이렇게 하려면 특히 “가난한 여성, 흑인 여성과 제3세계 여성[유색 여성], 레즈비언 여성이 제기하는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110).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증가했다. 로드는 이때야말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배우는 것에 페미니즘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시기”이며 “인종차별주의와 동성애혐오가 이 곳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삶의 실제 조건”이라고 진단한다(113).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가장 역겹고 지겨운 개량주의”이다(111).

“인종차별주의적 페미니즘 뒤에 숨은” 개량주의의 특징은 “주인의 도구”를 사용하는 모순이다(112). 로드가 은유로 사용한 “주인의 집”이란 차이를 지닌 존재를 배제하는 것에 그 기반을 세운 사회구조이다. “주인의 도구”는 다양한 형태를 띤다. 몇 가지만 말하자면, 분할통치라는 오래된 전략, 유색 여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척하는 구색맞추기, 피억압자에게는 억압적 상황에 대응할 힘과 권력이 없다고 전제하는 가정, 이런 잘못된 가정에서 나온 수많은 발상 이 있다(112-113). 이러한 발상을 지배하는 관점은 젠더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면 여성들이 그 구조 안에서 평등한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인의 집”을 허물기보다 그 집

안으로의 편입만을 모색하는 이 관점은 개량주의적이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단순한 관용의 대상으로 보는” 개량주의야말로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을 약화시키는 “주인의 도구”이다(111).

로드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야말로 당대 급진 페미니즘의 자원임을 강조한다. 개량주의를 넘어 페미니즘을 급진화하려면, 차이를 “우리가 개인적 힘을 기르는데 강력한 원료가 되는 연결점”으로,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이론화해야 한다(112). “차이는 우리의 창조성에 변증법적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며 수많은 갈래로 뻗어나가는 분극성을 지닌 보고”이다(111). “변화의 힘은 차이에서 나오며”(112), 차이야말로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Hall ed. 86). 차이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가난한 우리, 레즈비언인 우리, 흑인인 우리, 늙어버린 우리”의 관점을 페미니즘 이론 작업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다(112). 이렇게 해야 페미니즘 이론에도 내재한 “신화적 규범”(mythical norm, 116)을 탈피하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로드가 말한 “신화적 규범”은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둔갑시키는 지배의 기준을 뜻한다. 이 규범은 허구적이지만 강력하다. 미국에서 “백인, 날씬한, 남성, 젊은, 이성애자, 기독교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규범으로 간주된다(116). 이 “신화적 규범”에 따라 로드는 “늘 타자, 일탈자, 열등하거나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 여겨진다”(114). 로드에게 이런 규정은 여성 운동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인종,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자매애라는 말로 아우를 수 있는 동질적 경험이 있다고들 믿는 척 하는데, 사실 이런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116). 로드는 백인의 특권이 권력 구조의 주요 축인 미국의 권력체계에서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을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빛은 동일하지 않다”(118)는 점을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흑인 여성들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임도 다시금 강조한다(120).

이렇게 로드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계급, 나이, 섹슈얼리티, 계급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흑인 여성을 억압하는 다층적 권력체계를 분석하고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이론화함으로써 당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이론을 급진화한다. 교차적 관점에서 나온 로드의 차이 이론의 핵심에는 다층적 억압에 반응하는 내면의 감정에 대한 심층탐구가 있다.

앞으로 우리의 생존은 평등한 관계를 맺는 능력에 달려 있다. 가장 피상적인 수준의 사회변화를 넘어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성으로서 우리는 억압을 내면화하는 패턴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 . . 우리 지구의 미래는 모든 여성이 새롭게 권력을 정의하고 차이를 가로질러 관계를 맺는 새로운 패턴을 규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 . . 혁명적 변화의 진정한 초점은 단순히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억압적 상황만이 결코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깊이 심겨진 억압자의 모습이다. 억압자의 전술, 억압자의 관계만을 아는 억압자의 면모를 내장한 우리의 그 부분을 변화시켜야 한다. (122-123)

IV. 감정 연구와 급진 정치: 흑인여성혐오에 대한 심층 분석

깊은 감정의 힘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배가 완성되는 지점이다 (53). 자기변화와 사회변화는 우리 자신의 깊은 감정을 면밀히 다룰 때 더욱 현실화된다(36-39). 로드가 제시한 교차적 억압분석은 흑인 여성은 억압에 저항하며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지닌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바로 이러한 힘을 그 원천에서부터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모든 억압이 지속되려면 억압받는 이들의 문화에서 저항의 에너지를 내는 다양한 힘의 원천을 부패시키거나 왜곡해야 한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삶의 힘과 정보의 원천인 성애(the erotic)를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53). 로드가 성애라고 말한 것은 흑인 여성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힘과 지식의 원천”인 깊은 감정이며, 친밀한

관계나 대인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과 일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성취감이다(54-55). 성애가 억압체계에 합병되어 흑인 여성들이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회화될 때 비로소 억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1981년부터 로드는 자신이 성애라고 부른 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억압되고 왜곡되어 표출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다. 「분노의 활용」(1981)은 교차성 이론을 감정 연구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전환점을 기록한 글이다. 「서로의 노동자를 바라보며」(1983)는 로드가 감정 연구를 가장 탁월하게 수행한 글이다. 로드의 산문 중 여러 책에 가장 많이 수록된 「시는 사치가 아니다」(1977),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바꾸는 것」(1977), 「성애의 활용」(1978)도 1983년 글과 연결해서 보아야 심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세 편의 글에서 로드는 저항 행위로서 자기표현과 자기정의의 힘, 이에 기반한 내면 탐구의 중요성, 억압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의 의식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세 편의 글은 여성임을 긍정하는 페미니즘 존재론을 제시한다. 로드의 산문 전체를 놓고 보면, 1983년 글은, 먼저 쓰인 이 세 글에서 로드가 역설한 것들, 그리고 깊은 감정이 지닌 힘이 왜곡되는 방식과 그 힘을 사용하는 대안적 방식을 가장 정교하게 분석한 글이다. 달리 말해서, 로드의 페미니즘 존재론과 앞 절에서 논의한 교차성 이론은 감정 연구에서 완성된다.

서구 철학에서 유구한 사상/감정의 위계적 이분법에 맞서 로드는 감정을 “진실한 지식과 지속가능한 행동을 낳게 하는 숨겨진 힘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주장한다(37).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의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고, 흑인 여성 스스로도 감정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깊은 감정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자기 주장을 할 경우 받을 피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도 억압된다. 로드는 레즈비언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힘은 바로 이 억압된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밀한 감정 탐구야말로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로드는 이 억압된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행위는 “가장 급진적이고 담대한 사상”을 탄생시킬 수 있는 혁명적 행위라고 재정의한다(37).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는 솔직하고 내밀한 감정의 탐구에 빛을 밝혀준다(36-44). 로드가 “시”라고 명명한 이 행위는 “변화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의 최전선”에 존재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가리켜준다. 시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만든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두려움, 희망, 가장 소중히 여겼던 두려움을 인식한다”(39). 여러 억압체계는 젠더,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이러한 권력체계의 작동은 감정과 성애를 특정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규율을 통해 완성된다. 그렇다면, 감정이야말로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곳이기도 하다.

로드는 흑인 여성의 마음속에 숨겨진 힘을 성애로도 논의한다. 「성애의 활용」에서 성애는 감정이 지닌 가장 깊은 힘이라고 재정의된다. 로드는 성애를 섹스에만 국한하는 섹슈얼리티 규율에 맞선다. 성애는 진실된 감정을 경험하고 긍정하는 “힘과 지식의 원천”이고, “우리 자신의 삶과 일에서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체험하는 것이며,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충실하게 깨어있기”를 추구하는 “의식적 결정”이다(54-55). 이러한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성애란 가장 심층적인 자기인식이 일어나는 곳이다. 둘째, 성애는 (단지 성적 만족감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는 사회적 능력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Ferguson 297).¹⁰⁾ 일단 성애를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강렬하게 긍정하는 체험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 경험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힘을 깨닫게

10) 로드가 말한 성애는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길(Lyndon K. Gill)을 참조.

해주어 삶의 모든 측면의 질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 가르치는 고통과 자기부정, 무감각으로는 당연히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억압에 대항하는 우리의 행동은 자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추동되고 힘을 얻는다”(58). 로드가 말한 성애는 “사회적 행위능력 일반의 원천이자 그 틀”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고 (Ferguson 297), 실제로 로드도 성애를 “영적인 것(심리적 정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잇는 다리”라고도 정의한다(56). 실로 로드가 제시한 성애 개념은 상당한 확장성을 지닌 열린 개념으로 다양하게 전유되었다.

그러나, 로드의 성애 개념은 일차적으로 로드 자신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1회 유색 인종 게이와 레즈비언 전국대회(1979)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로드는 이렇게 지적한다. 게이와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는 미국 사회와 흑인 공동체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억압되고 가장 혐오되는” 존재이며 이런 사회적 비가시화는 단순한 허위 의식이나 내면화된 억압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다(Byrd, Cole, and Guy-Sheftall 211). 레즈비언과 게이를 가장 멸시받는 집단으로 통제하는 사회적 “무시는 우리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라야 끝장날 것이다”(Byrd, Cole, and Guy-Sheftall 207). 레즈비언 흑인 여성으로서 로드는 “내면 깊숙이 있는 지식”을 언어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동성애혐오적 “무시”의 종말을 앞당기고 현실화하는 이론적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로드는 여성들이 스스로와 서로에게 품는 감정을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을 연다. 로드는 인종차별주의를 핵심 의제로 삼았던 1981년 미국 여성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한 기조연설 「분노의 활용: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여성들」에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생산적 대화의 양상과 감정 역동을 분석한다. 로드는 인종, 계급, 사회적 지위, 나이, 섹슈얼리티에 따른 “배척, 문제시되지 않는 특권, 인종에 따른 왜곡, 침묵,

학대, 고정관념, 방어적 태도, 잘못된 명명, 배신, 포섭”에 대응하는 적합한 감정은 분노(anger)라고 주장한다(124). 이 기조연설에서 로드는 분노를 표현하는 흑인여성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비난(“쓸데없이 분열만 초래한다”)에 맞서 분노의 정치적 함의와 유용성을 거론한다. “정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춘 분노는 진보와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으며 “분노에는 에너지와 정보가 실려 있다”(127). 흑인 여성의 분노에 백인 여성이 보이는 “죄책감과 방어적 태도”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의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감정적 구실일 뿐이다(124).

억압과 차별이 정서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점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로드는 분노와 혐오(hatred)를 구분한다. “대립과 위협의 원인은 분명컨대 우리 사이의 분노가 아니라 모든 여성, 유색 여성, 레즈비언 여성과 게이 남성,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악의적인 혐오이다”(128).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퍼져있는 여성혐오”(woman-hatred)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129). 여성혐오, 인종화된 혐오, 성애화된 혐오, 계급화된 혐오는 억압의 강력한 도구이다. 성차별주의와 결합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는 흑인 여성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다(129). 혐오의 감정정치는 억압에 저항하면서,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등에 따른 차이를 거론하는 이들을 혐오해야 할 대상으로 둔갑시킨다. 혐오정치의 목적은 혐오대상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다(129). 반면에 분노는 혐오정치를 가동하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며, 페미니스트 “동료 사이에 일어나는 왜곡을 슬퍼하는 감정”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은 “변화”이다(129).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서로의 분노를 솔직하게 다룬다면 분노를 변화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로드는 경청을 생산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인종차별주의와 이에 대한 흑인 여성의 분노에 대해 백인 여성들이 보이는 죄책감은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하는 일이다. 죄책감은 “자신이 하거나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자 “소통을 파괴하는 방어심리”에서 나온다(130).

죄책감은 자신이 차별 행위에 공모하고 있음을 외면하는 편리한 심리적 구실이다. 죄책감은 잘못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두둔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자기성찰을 거부하며 변화를 꺼리기에 느끼는 감정이다. 죄책감은 “분노를 피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진정한 문제를 외면하려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 쓰는 방편이다. 죄책감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주는 압력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130). 로드는 백인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구실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분노를 표출하는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제안한다.

경청의 공간에서라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분노는 죄책감을 구실삼아 회피하는 방향으로나, 더 심한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명료히 설명하고 서로의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분노를 활용할 수 있다”(132). 경청은 “단 한 명의 유색 여성이 속박 하에 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133)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해진다.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바꾸는 것”(40)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언어로 표현하고 그 원인과 맥락을 살펴보면서 따로 또 함께 성찰할 때,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 대화와 저항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노의 활용」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감정적 반응상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분노를 혐오정치에 맞서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흑인 여성, 혐오, 그리고 분노」에서 로드는 인종차별주의를 내면화한 흑인 여성들 사이의 감정 역동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탐구는 흑인 여성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가 왜 유독 다른 흑인 여성을 향해 가장 쉽게 표출되는지, 서로의 인정과 지지를 원하면서도 서로 연결되기를 꺼리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지를 핵심질문으로 삼는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심리 상태는 자기혐오, 서로에 대해 품는 미움과 냉혹한 잔인함, 그리하여 서로에게 소외된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표출되는 분노의 가장 깊은 바탕은 인종화된 여성혐오이다. 이 “혐오는 미국에서 흑인이자 여성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조준된 사회적 죽음 소망이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우리를 향한] 혐오에 흠뻑 물든다. . . 이 혐오의 메아리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잔인함과 분노로 되돌아온다. 우리 각자가 이 혐오심이 찾아내려오는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46). 미국에서 흑인 여성은 이 인종화된 여성혐오를 체현한 존재로 규정된다. 로드는 흑인 여성들이 서로에게 폭발하는 분노의 연료는 바로 흑인여성혐오이며, 흑인여성혐오가 미국의 억압구조를 지탱하는 심리구조임을 규명한다. 흑인 여성에 대한 미국 사회의 “혐오와 멸시”는 흑인 여성의 심리도 강력하게 구성한다(146). 로드는 이렇게 고백한다. 흑인 여성의 마음속 깊이 직조된 이 “혐오와 멸시”는 “내가 나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부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외적인 표출을 다루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서로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왜곡한 결과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147).

로드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에 뿌리를 둔 경멸과 폄하의 적나라한 언어폭력에 종속되었던 공적 맥락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세히 묘사한다. 예컨대, 할렘행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백인 여성이 그리고 안과에서 백인 남성 의사들이 자신에게 던진 시선은 흑인 혐오이다. 어린 시절의 로드는 이 경험을 명명할 언어가 없었으나 훗날 작가 로드는 이를 분명하게 흑인혐오라고 인식한다. 첫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백인 남성은 흑인소녀가 면접하러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어린 로드를 위 아래로 훑어보다 기슴을 한참 쳐다본다. 이 장면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적 대상화가 서로 얽혀 일어남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흑인소녀는 어머니에게 흑인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지만, 그 과정에서 “고립, 격분, 불신, 자기거부, 슬픔도” 배우게 된다(149). 백인들이 사는 집에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해”라고 써 붙인 간판도 흑인혐오를 적나라하게

전달한다(151). 어린 시절 경험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는 둘 다 정확하게 혐오로 인지된다”(152). 로드의 회고는 흑인 여성은 흑인여성혐오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살아남은 주체라는 점도 보여준다.

흑인여성혐오는 흑인 여성의 마음에 분노, 자기혐오, 그리고 다른 흑인 여성에 대한 냉혹한 잔인성을 키운다. 1981년 글과 달리 1983년 글에서 로드는 분노가 “죄책감처럼 불완전한 형태의 지식”이라고 인정한다(152). “우리의 차이를 인식하는데 분노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노만으로 길러진 힘은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는 맹목적 힘이다. 분노는 과거를 파괴할 수 있을 뿐이다”(152). 로드는 한껏 성장중인 흑인여성문학이 잘 보여주듯 흑인 여성들의 분노의 감정 뒤에는 상호연결, 응원과 지지를 원하는 열망이 있음을 강조한다. 달리 말해서, 흑인 여성들이 서로에게 행사하는 냉혹한 잔인성은 이 열망을 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환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열망을 인정하고 실현하려면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표출되는 분노, 불신, 두려움, 거리두기의 심리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로드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이렇게 설명한다.

흑인 여성을 만날 때 그녀가 나의 즉각적인 필요나 욕망과 조금만 다르거나 나에게 보여야 할 적절한 반응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느껴지는 분노는 깊은 상처를 주는 분노이다. 이 분노는 오로지 절박한 자포자기 속에서 선택된 감정이며, 절망 때문에 무분별해진 감정이다. 이 분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함께 해야 할 존재들인데도 실은 너무 분열되어 있기에 내가 느끼는 고통을 가리는 가면이다. 나는 그녀를 무척 필요로 하는데 그녀는 아마도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 느낄 때 동반되는 고통을 분노로 가리는 것이다. 그녀가 혐오감을 품고 통명스런 시선으로 나를 본다. 여길 때 느껴지는 고통을 가리키는 가림막인 이 분노. 그녀의 통명스런 시선은 실제로 그녀가 통명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왜곡해서 본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154)

로드는 자신이 “그녀를 왜곡해서 본” 정도에 비례해서 “깊은 상처를 주는 분노”를 느꼈음을 분석한다. 위 인용문에서 로드는 “깊은 상처”에 새로이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로드가 다른 흑인 여성과 마음 속 깊이 연결되고 싶은 욕망과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고통이 분노라는 감정에 동시에 압축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자기불신과 상호불신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 분노는 저항의 에너지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그것을 해소하고 없애버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인 온전한 자기긍정과 열망하는 마음을 파괴한다. 대신 자기에 대한 절망, 서로에 대한 실망과 잔인함을 키운다.

흑인 여성들 사이의 분노와 잔인함은 흑인여성혐오의 부산물이지만 흑인 여성들의 대인관계에 깊숙이 침투하여 흑인 여성들 사이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박탈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혐오의 주사를 맞는다. 이 주사는 죽음의 주사로 의도된 것이다. 우리는 이 주사에 적응했고 철저한 검토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른 댓가는 무엇이었던가! 풍파를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바위가 되어야 했고,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 인해 스스로를 멍들게 한다”(159-160).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백인 여성들과 달리 흑인 여성들이 직면하고 풀어야 할 도전사항이다.

이렇게 흑인 여성들이 스스로와 서로를 분노와 절망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만드는 것은 지배적 규범에 따른 것이다. 지배적 규범은 사실 “거짓신화”이다(168). 이런 “거짓신화”를 몇 가지만 꼽자면, 화는 온당치 못한 감정이라는 판단, 예의를 갖추어 서로의 눈동자를 직접 바라보지 말라는 요구, 흑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핍화와 부인을 보지 말라는 거짓 믿음,” 완벽하라는 거짓된 요구에 부응하려는 잘못된 믿음, 감정을 깊이 느끼지 말라는 충고 등이 있다(168). 이런 “거짓신화”는 흑인 여성들이 서로에게 “학습된 잔인함”을 휘두르도록 조장한다(166). 흑인 여성들은 “거짓신화, 고정관념, 외부에서 부여한 기대, 우리

의 것이 아닌 규정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서로를 만난다”(170). 흑인 여성들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을 상대에게 투사하여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틈에 빠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부자처럼 행동하면서 외부자처럼 느끼고, 자기거부를 보존하는 동시에 극복하며, [분열적으로] 생각한다”(170).

흑인 여성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 거부와 거리두기, 상호부정, 감정의 혼란, 비생산적인 감정풀이에서 해방되려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로드는 이것을 “스스로를 돌보기”(mothering ourselves, 173)라고 명명한다. 이것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기대한 인정과 성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쏟는 것,” 그리고 “나의 생존에 온힘을 쏟음으로써 나의 자아에 그리고 다른 흑인 여성의 자아 속에 있는 나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을 뜻한다(173). 또한,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능한 것과 외부의 강요를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이 힘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내면을 따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아는 것, 이러한 힘을 활용함으로써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아는 것,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약하고 겁먹고 손상된 것의 잔여물을 (아무런 경멸심 없이) 보듬어주는 것을 뜻하며, 생존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내고 응원함을 뜻하며, 차이를 서로 함께 탐색하는 것에 온힘을 쏟는 것을 뜻한다. (173-174)

이렇게 가장 깊은 차원에서부터 스스로를 돌볼 때, 흑인 여성들은 스스로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로드는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법을 골똘히 연구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흑인 여성들이 스스로와 서로에 대한 “이 긴밀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은 길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변화의 첫 걸음이다(175).

로드의 감정 연구는 당대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이 일구어 온 사회변화가 페미니스트/여성 개개인의 자기변화와 연결되지 못한 지점에서 나온 것이다. 로드는 흑인 여성들의 내면 깊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의 구조물에 빛을 비추어 언어화하고 그 작동 방식을 밝혀낸다. 급진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 비단 외부의 구조적 요인들뿐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조적 억압이 우리의 힘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행하는 자기억압은 우리가 지닌 힘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한다. 정치가 바뀐다고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르게 살려면 정치가 필요하다. 억압적 구조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식민화된 무의식은 훗날 많은 유색 여성 페미니스트들도 주변성을 저항의 중심으로 이론화하면서 직면해야 했던 문제인 것처럼, 주변부 여성들에게 “스스로 힘기르기야말로 가장 심층적인 정치활동이자 가장 어려운 일이다”(170). 로드는 정서를 통해서 작동하는 정치를 교차적 억압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변화와 사회변화를 연결하는 페미니즘 정치를 활성화한다.

이 글은 로드의 페미니즘 이론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미국의 여러 사회운동의 맥락에 그 뿌리가 있음을 다시 상기하고, 로드를 당대 페미니즘과 그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론가라고 논의하였다. 로드의 이론은 레즈비언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과 권력 체계를 분석하고 감정 연구를 아우른다. 로드의 이론은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참여하면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이 필요해진 때에 교차적 억압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가능하게 했다. 교차적 억압과 함께 가동되는 정서 정치와 심리 구조에 대

한 로드의 분석은 차이를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힘”(70)으로 정의하는 대안적 차이 이론을 제시한다. 로드가 제안한 급진 페미니즘 정치는 교차성 이론, 차이 이론, 감정 연구를 면밀하게 연결한 성애의 활용에서 시작된다. 필자는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가 로드의 교차성 이론과 감정 연구를 가장 정교하게 연결한 글이며 로드의 산문 중 최고작이라 평가한다. 당대 여성들과 특히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교차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층심리 차원에서도 탐구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야말로 로드가 제시한 교차적 억압분석과 차이 이론을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 당대와 훗날 펼쳐질 페미니즘 이론에 깊이를 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긍정하는 이론적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낸 로드의 교차성 이론과 감정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에 레즈비언과 흑인 여성의 경험을 통합하는 관점과 접근틀을 들여오으로써 훗날 교차적 관점없는 페미니즘 이론 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불귀의 지점을 형성했다.

Works Cited

- 박미선.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교차성 이론: 초기 저작에서 『경제지대/경제선』까지」. 『여성학연구』 24.1 (2015). 95-126면.
- 콜린스, 패트리샤 힐. 『흑인 페미니즘 사상』. 주혜연·박미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9 [1991]).
- Byrd, Rudolph P. “Create Your Own Fire: Audre Lord and the Tradition of Black Radical Thought.” *Introduction to I Am Your Sister: Collected and Unpublished Writings of Audre Lorde*. Eds. Rudolph P. Byrd, Johnnetta Bestch Cole, and Beverly Guy-Shefall. Oxford: Oxford UP, 2011. 3-36.
- Byrd, Rudolph P., Johnnetta Betsch Cole, Beverly Guy-Sheftall. Ed. *I Am Your Sister. Collected and Unpublished Writings of Audre Lorde*. Oxford: Oxford UP, 2011.
- Carastathis, Anna. *Intersectionality: Origins, Contestations, Horizons*. Lincoln: U of Nebraska P, 2016.
- Choo, Hae Yeon, and Myra Marx Ferree. “Practicing Intersectionality in Sociological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of Inclusions, Interac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Inequalities.” *Sociological Theory* 28.2 (2010): 129-149.
- Collins, Patricia Hill. “It’s All in the Family: Intersection of Gender, Race, and Nation.” *Hypatia* 13.3 (1998): 62-82.
- Collins, Patricia Hill, and Sirma Bilge. *Intersectionality*. Cambridge: Polity, 2016.
- de Veaux, Alexis. *Warrior Poet: A Biography of Audre Lorde*. New York: Norton, 2004.
- Ferguson, Roderick A. “Of Sensual Matters: On Audre Lorde’s ‘Poetry Is Not a Luxury’ and ‘Uses of the Erotic.’” *Women’s Studies Quarterly* 40.3&4 (2012): 295-300.
- Crenshaw, Kimberlé.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 (1991): 1241-1299.
- Gill, Lyndon K. “In the Realm of Our Lorde: Eros and the Poet

- Philosopher.” *Feminist Studies* 40.1 (2014): 169-189.
- Guy-Sheftall, Beverly. “Bearing Witness: The Legacy of Audre Lorde.” *I Am Your Sister. Collected and Unpublished Writings of Audre Lorde*. Eds. Rudolph P. Byrd, Johnnetta Betsch Cole, and Beverly Guy-Sheftall. Oxford: Oxford UP, 2011. 253-260.
- _____. Ed. *Words of Fire: A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Feminist Thought*. New York: The New Press, 1995.
- Hall, Joan Wylie. Ed. *Conversations with Audre Lorde*. Jackson: UP of Mississippi, 2004.
- Ilmonen, Kaisa. “Identity Politics Revisited: On Audre Lorde, Intersectionality, and Mobilizing Writing Style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Online First Publication (April 8, 2017). Web. <https://doi.org/10.1177/1350506817702410>
- King, Deborah. “Multiple Jeopardy, Multiple Consciousness: The Context of Black Feminist Ideology.” *Words of Fire: A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Feminist Thought*. Ed. Beverly Guy-Sheftal. New York: The New Press, 1995. 294-317.
- Lorde, Audre. *Sister Outsider*. Berkeley: Crossing Press, 2007[1984].
- McCall, Leslie.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1 (2005): 1771-1800.
- Nash, Jennifer C. “Practicing Love: Black Feminism, Love-Politics, and Post-Intersectionality.” *Meridians: Feminism, Race, Transnationalism* 2.20 (2013): 1-24.
- Nayak, Surya. *Race, Gender and the Activism of Black Feminist Theory: Working With Audre Lorde*. New York: Routledge, 2015.

- 논문 투고일자: 2018. 02. 22
- 심사 완료일자: 2017. 04. 03
- 게재 확정일자: 2017. 06. 18

Abstract

Audre Lorde's Theory of Intersectionality and Affective Politics

Mi Sun Park
(Hanshin University)

This article discusses Audre Lorde's theory of intersectionality and affective politics, rereading Lorde's *Sister Outsider* (1984) and other essays. Focusing on the ways in which Lorde elaborates her multiple positionings in American society in the 1970's and 1980's and, in particular, in her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including women's movements, Africa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s, and the early gay and lesbian movements, I argue that Lorde makes a pioneering contribution to feminist understandings of intersections among gender, class, race, sexuality, age, etc. I also argue that Lorde's in-depth study of emotional dynamics between African American women profoundly enriches her intersectional theory by illuminating where and in which ways her contemporary feminists became reluctant and blind to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women. A pioneering text of intersectionality, *Sister Outsider* reminds us that our contemporary theory of intersectionality is firmly rooted in the social movements from the late 1960's to the 1980's.

Key words

Audre Lorde, *Sister Outsider*, black feminism, intersectionality, affect, hatred, anger, the erotic, emotion, feminist theory